

2022년 11월 13일 “예수님의 비유(20) 두 아들 이야기”(마 21:28-32)

오늘 비유의 중점은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는가'입니다. 당시 사회/종교/정치가 맞물린 배경을 살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침례 요한,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21 장 전반부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분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님께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권세의 출처를 되물으시며 그들의 말문을 막습니다(21:23-27).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31 절후). 사실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의 옳은 길을 믿고 따른 자들입니다(32 절전).

요한은 메시아 예비대로서 천국 회개 운동을 벌리며(마 3:2, 4:17), 요단강에서 많은 이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 주류 지도자 층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들로부터 분리하여 세운 옛세네파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마 11:11 참고).

침례 요한/예수님을 따른 세리와 창녀들의 삶은 경건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에 동참했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둘째 아들의 상징: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은 최고 지도자이며 국가의 모든 수익에 관여할 수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국가에서 거두는 주수입원은 제사와 성전세인데,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으므로 이들과의 결탁 속에서 많은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 사회 속에 이미 존재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전통 속에서 그들의 임무는 성도들 케어와 인도, 공동체 질서와 조화를 가꾸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로 나타나야 하는 것에는 관심을 잃고 종교적인 겉모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적용

우리 또한 욕망과 중독과 집착에 빠지거나, 권력/인기 지향적이거나, 자기의 세속적 신념에 갇히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주님을 몰라보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주님을 향한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된 어떤 것도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새 물결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을 따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점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까?
(32 절 참고)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이 내게도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